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무렵기는 하지만 형제자매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순례 여행이 16일(토)부터 23일(토)까지 계속됩니다. 기도로 지원해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집회에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휴가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는 목요일 하루 자동차에게 휴가를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자비하신 하나님, 저 밤하늘의 못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어둡고 막막한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주십시오.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을 새기지 않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을 용인하는 황금송아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제단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시고 가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박시내 한상의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김근중 정옥영 김정섭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박병구 신윤정 박창운 허정윤 안정숙
 윤영원 이선희 임주빈 최현옥 최종미 임고운 김준호 곽경선 김주경
 권미숙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윤정 김지현 김지은 배부례 송의섭 송인회 윤성종
 김윤정 이갑재 이성범 이인웅 전영자 이소순 권 순 윤정화 구자훈

감사헌금:

양재성 강인식 김정숙 한완식 임정자 전성오 조항신 왕성환 강순배
 강지은 김영동 이은미 박병구 황경순 김용길 최영혜 이성운 무명8
 유초등부교사일동 오래된미래

생일감사헌금: 정영선 김경수

녹색꿈헌금: 허호범 박범희 한슬기 한슬해 한종묵 한선숙 정은영
 (누계: 1,77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간격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마지못해 감당하는 자 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제는 사명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욕망의 물결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가야할 곳을 바로 보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는 힘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8월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기도 / 유경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하진솔 선생 김인걸 장로	인도자 박찬정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문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깨어 있음의 수련에 대하여

사부들이 자신들의 움막(kellion)에 앉아 있는 것은 중요한 수련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신심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기도를 하거나 단식을 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대의 움막에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몸을 움막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옆에서 본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견디어내는 일이다.”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수련을 제안해 보겠다. 당신의 방에 30분 동안 앉아 있는 것이다. 손에 책을 들지 마라. 묵상을 하거나 어떤 기도문을 외워서도 안 된다. 다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당신 내면을 무엇이 휘젓고 있는지 관찰하라. 수도승들은 이 수련을 ‘넵시스(nepsis)’, ‘깨어 있음’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수도승을 어부에 비유했다. 어부는 배에 앉아 주변의 물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린다. 그래야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주변의 물이 고요해지고 맑아질 때까지 방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분출되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손 안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물고기가 몸에 좋고, 어떤 물고기를 다시 물에 던져 넣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한 수련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가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다. 최근 연수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 수련을 시켰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매우 중요한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묵상을 했어도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에 관한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 가리움 없이 있게 되자 단번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발견했으며, 그 진실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진실을 깨닫자 그들은 자유로워졌으며, 깊은 평화로 충만해졌다.

놓아버리기에 대하여

압바 모세는 이상한 충고를 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수련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자신을 일과 완전히 동일시하면 정말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해낼지 우려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일에 묶이게 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온갖 일만 골똘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그 일이 당신에게 주어지면 당신은 대개 일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다고 상상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무덤 속에서는 모든 하찮은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것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마주 서게 된다. 다른 모든 것은 용해된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에 고정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내적 자유는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사부 모세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초개인적 심리학에서 ‘탈-동화’(Dis-Identifikation)라고 부르는 것과 부합된다. 우리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내가 할 일은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은 아니다. 내가 해결한 문제는 있다. 그러나 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내 안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나 두려움이 관통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요한 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참조, 요한17:16).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장 심오한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주어진 일에 종사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설혹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자유는 내가 일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된다.